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설 명 자 료</b>				
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배포 시</b>	배포	2022.3.3.(목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(02-2100-2690)	<b>담 당 자</b>	허남혁 사무관(02-2100-2695)
	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 형 준(02-3145-7700)		권영민 부국장(02-3145-7702)

**제 목 : 내일신문의 3.3.일자 “셀트리온 분식혐의 ‘고의성’ 인정 안될 듯” 기사에 대한 입장**

**1. 기사 내용**

- 내일신문은 “셀트리온 분식혐의 ‘고의성’ 인정 안될 듯”이라고 언급하면서,
  - “증선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분식회계혐의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, 증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고의를 입증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짐”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

**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**

-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으로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조치 여부와 조치 수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
---	--	--	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